

빵으로 완자탕으로...토란 맛 기행 오세요

곡성 대표특산물 음식 개발 맛 관광명소 육성 홍보 나서

곡성이 ‘흙 속의 달걀’로 불리는 토란을 활용한 관광명소를 개발,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토란 주산지인 곡성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민들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에서 곡성으로 향하는 첫 방문지인 곡성기차마을 휴게소(하행선)는 ‘토란대 육개장’과 ‘토란 완자탕’을 파는 유일한 휴게소다.

곡성읍에 가득한 ‘토란 맛의 성지’들도 꼭 둘러봐야할 명소로 소개했다.



토란 완자탕.

곡성축협에서 운영하는 명품관은 ‘들깨 토란탕’으로 입소문이 난 맛집이라고 꼽았다.

곡성 친환경 토란에 들깨가루와 곡성축협의 질 좋은 소고기를 듬뿍 넣어 걸쭉하



토란 버블티와 토란 스콘.

게 끓인게 별미로, 고향집 할머니가 끓여 주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곡성군 설명이다.

곡성의 가장 오래된 동네빵집인 모짜르트 제과점과 커피숍에 들러 토란빵과 쿠키

를 맛보는 것도 곡성 여행에서 꼭 해봐야 할 ‘머스트해브’ 체험거리다.

모짜르트 제과점은 토란을 넣은 8가지 종류의 토란 빵, 토란 쿠키를 판매하고 곡성읍과 기차마을에 있는 B’s 커피숍에서는 ‘토란버블티’와 ‘토란스콘’을 맛볼 수 있다.

토란맛집인 ‘반하다 밥카페’는 맑은토란국, 전토란, 토란전병 등 깔끔하고 먹기 좋게 요리한 건강식 토란 요리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곡성군은 소개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국 토란 재배면적 절반,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곡성의 대표특산물 토란을 재료로 한 요리를 즐기 위해 곡성에 맛 여행을 나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오는 15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운영되는 보성차밭 빛축제장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 차밭 빛축제 15일 팡파르

빛터널 늘리고 입장 유료화

오는 15일부터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보성차밭 빛축제는 ‘전년 보성, 천송이 빛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화려한 불빛과 불거리로 관심을 모은다. 다만,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빛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유료화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보성군은 우선, 광활한 녹차밭·능선을 따라 다양한 색상의 빛이 물결처럼 출렁이도록 한 화려한 차밭 풍경, 차원을 형상화한 디지털 차나무, 30분 간격으로 밤하늘로 쏘아올라지는 무빙 라이트쇼, 수백만개의 LED 전구가 빛을 밝히는 은하수 빛터널을 여행객들의 눈길을 붙들 불거리로 꼽고 있다.

보성군은 전년도에 비해 은하수 빛터널을 50m 늘려 230m로 꾸몄고 연인·친

구들과 함께 소망카드를 매달며 낭만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말에는 불·음악·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진 공연과 실내정원의 공룡을 이용한 가든판타지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장터에서는 화덕체험, 주전부리, 농특산물 등을 체험하거나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울포술밭낭만의거리’에도 큐브 미디어 아파사드와 은하수 조명, 공룡·툰바이 조형물을 설치해 여행객들이 바다를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보성 지역민들은 3000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야하고 타 지역 성인들은 5000짜리 상품권을 사야 축제장에 들어갈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상품권 입장은 유료 같지만 축제장 뿐 아니라 보성지역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홍보·입장권 구매 등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키로 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목포에서 열린 민선 6기 제 16차 정례회(사진)에서 현안과 동계올림픽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 시·군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올림픽 홍보 활동 사항을 시·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공유하고 입장권을 단체 구매해 지역민이 올림픽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입장권 제공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도 차원의 지방분권 개헌 운동조직 정비 및 공간대 확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곡성 할머니들 두번째 시그림책 냈다

‘눈이 사뿐사뿐 오네’
시 18편과 그림 14점



마을 도서관에서 생애 처음 한글을 배운 70~80대 할머니들이 시그림책을 냈다.

지난해 4월 시집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낸 할머니들이 시와 함께 그림을 그린 두 번째 책이다.

김막동, 김점순, 박점례, 안기임, 양양금, 윤금순, 최영자 할머니 등 7명의 작가 할머니들의 두 번째 책 제목은 ‘눈이 사뿐사뿐 오네’다.

첫번째 책 ‘시집살이 시집살이’는 할머니들이 머느리로서 살아온 ‘시집살이’와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시작한 ‘시집살이’라는 의미를 담아 124편을 모아 냈고 이번에는 ‘눈 오는 날’을 주제로 쓴 시 18편과 각 시에 나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담겼다.



최근 곡성군 서봉탐동 마을에서 할머니들의 시그림집 ‘눈이 사뿐사뿐 오네’ 출판 기념 자축연이 열렸다. <곡성군 제공>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행복했던 추억으로, 때로는 서럽고 애뜻함으로 남아있던 눈에 대한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어메는 나를 낳고 ‘또 딸이네.’/외목에 밀어 두고 울었다/나마저 너를 미워하면/세상이 너를 미워하겠지/질긴 숨 붙어있는 핏덩이 같은/나를 안아 들고 또 울었다/하늘에서는 흰 눈송이가/하얀 이불솜처럼 지붕을 감싸던 날이었다.”

안기임 할머니의 ‘어쩌다 세상에 와서’는 그 시대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밤새 눈이 와/발이 꽂 묶여 버려/오도 가도 못하겠네/어쩔까/이 눈이 쌓이라곤 좋겠네”

박점례 할머니의 ‘겨울’은 당시의 어려

운 경제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림들은 대부분 투박하지만, 꾸준히 습작하며 다듬은 시들은 어느덧 매끄러운 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김선자 길작은도서관장은 “어느 날 수업에서 눈 오는 날을 주제로 각자 시를 쓰게 됐고, 각 시에 들어갈 그림을 공동 작업으로 그렸다”면서 “처음에는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도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어 손이 떨린다’고 하다가 한 장면 한 장면 완성돼 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했다”고 전했다.

김 관장은 “순수 세대들이 할머니들의 세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할머니들의 시 그림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고흥군 청년정책협의체 27명 위촉식



고흥군이 젊은층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협의체 위촉식(사진)을 갖고 청년정책협의체를 가 공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 9일부터 공개 모집과 읍·면 추천을 거쳐 27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협의체는 3개 팀으로 나뉘 ▲청년중심 기반 조성 ▲청년 일자리 ▲청년 문화·복지 지원 ▲청년 유동인구 유입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군정 모니터링을 통한 청년층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흥군은 지난 6월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군 단 위 중 처음으로 청년 전담팀을 신설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투자 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음,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음
- 매매 - 25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